

Premium Report 제88호
(2021. 10. 29)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 실태조사 분석 및 시사점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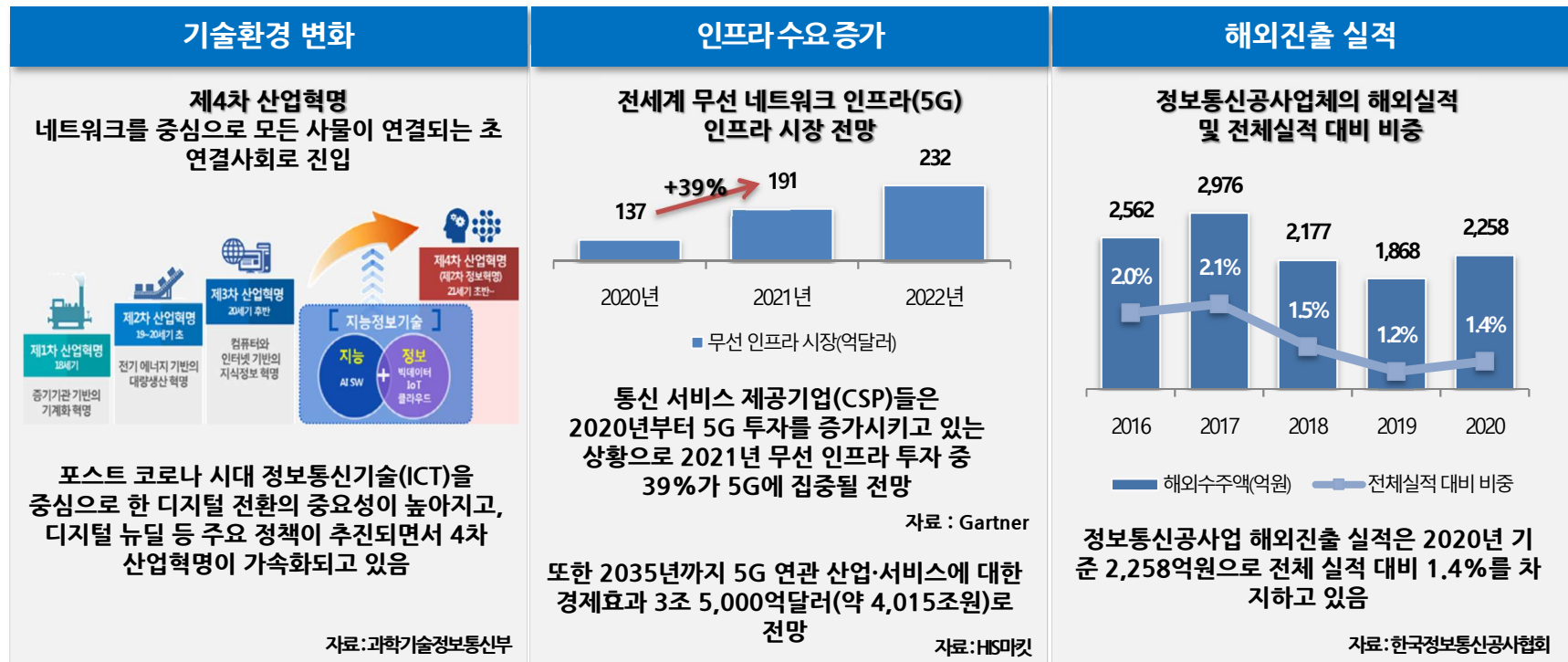
작 성 자 : 도윤희 연구원

내용 문의 : T - (031) 231-3423 / E - yunhee@kici.re.kr

1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 실태조사 배경

- 새로운 수익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해결 방안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필요성 확대
 - 5G 인프라를 활용한 전 세계적인 정보통신 환경 변화 및 관련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 연관 산업의 해외진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 반면,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을 담당하는 정보통신공사업의 해외진출은 지속적인 성장과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정보통신공사업 부문의 해외진출 현황을 진단해보고, 효과적인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 추진전략을 도출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함

2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 실태조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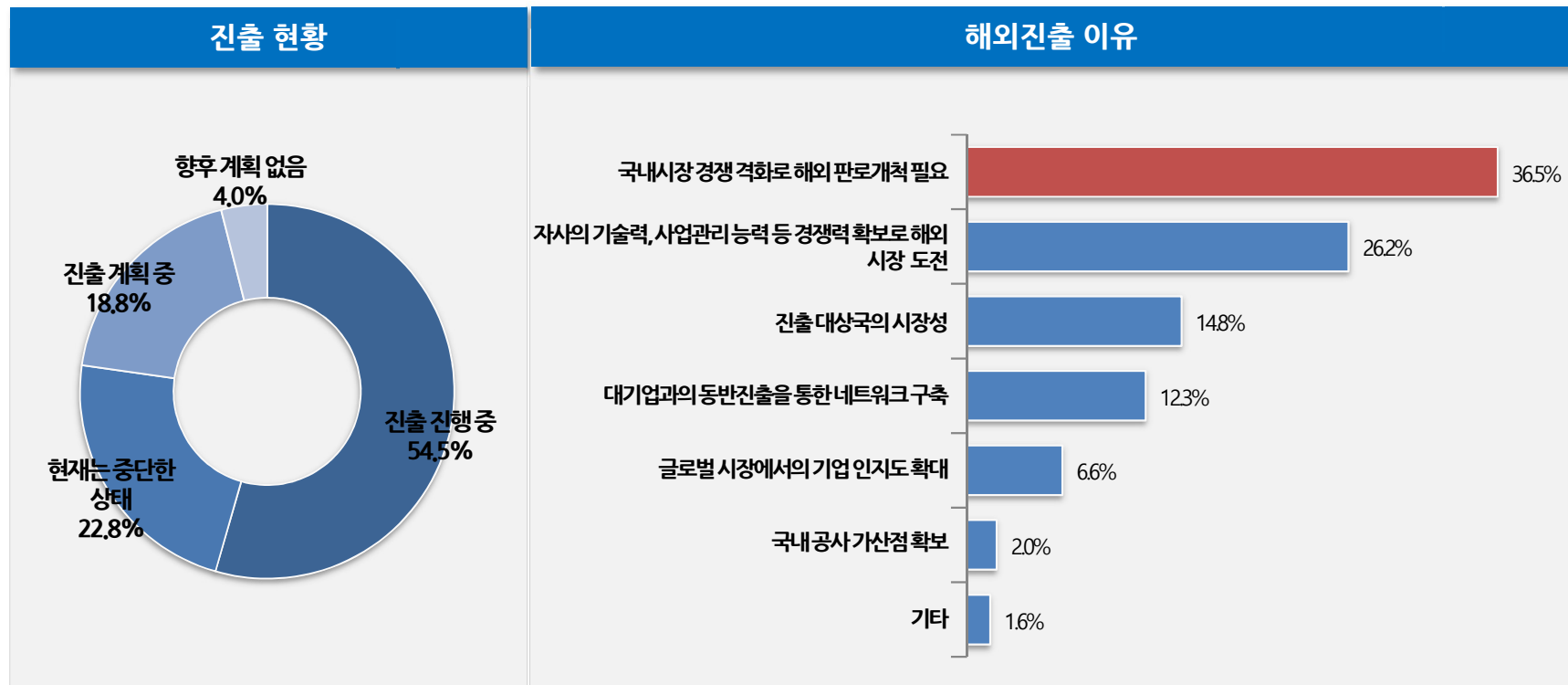
- 정보통신공사업체의 해외진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해외진출 경험이 있거나 또는 계획 중인 정보통신공사업체 10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함



3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 실태조사 결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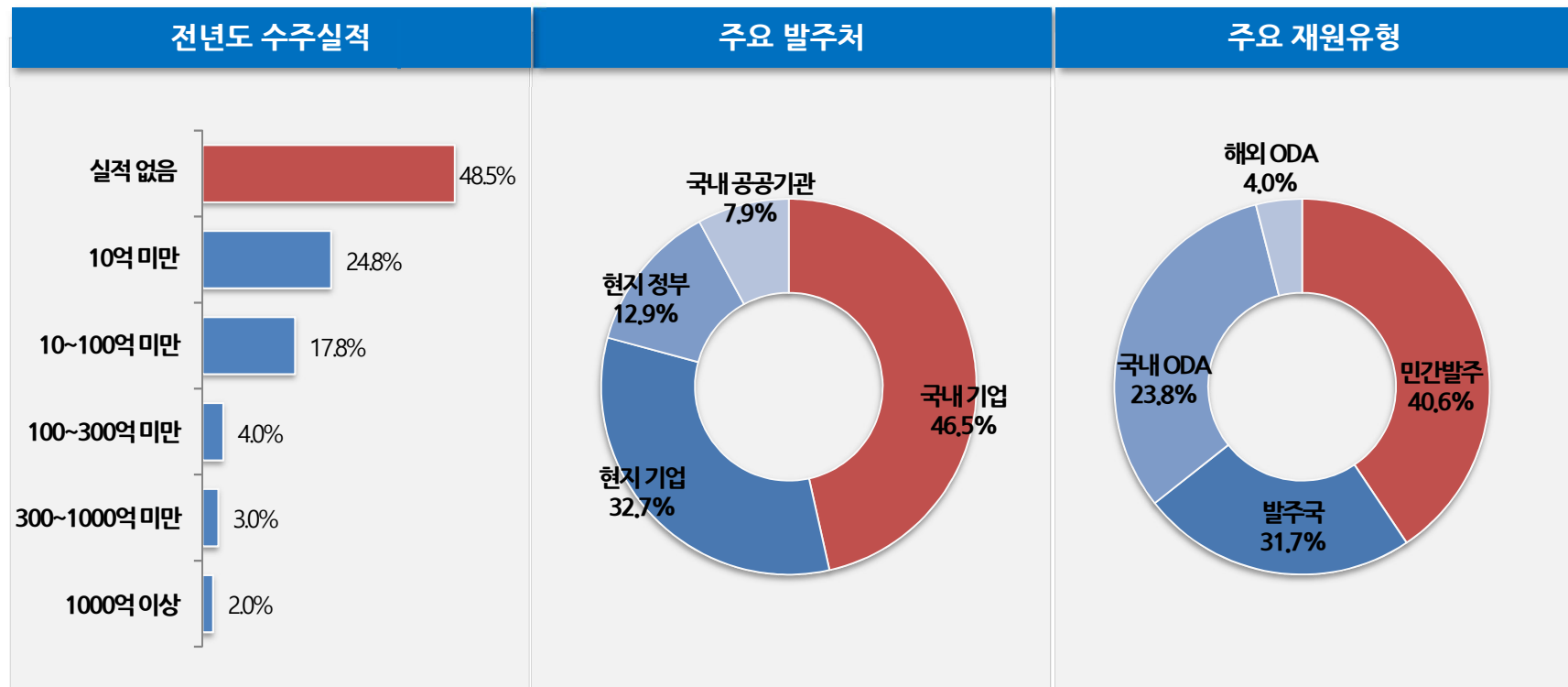
- ▶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경우, 국내시장의 경쟁 격화로 인해 새로운 해외 판로개척 필요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새로운 판로개척 필요, 자사의 경쟁력 확보로 인한 해외시장 도전, 진출 대상국의 시장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현재 해외진출을 진행 중인 업체의 비중(54.5%)이 전체 응답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뒤를 이어 해외진출 경험이 있으나 코로나 영향 등으로 인해 현재 진출을 중단한 상태인 업체의 비중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남



3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 실태조사 결과(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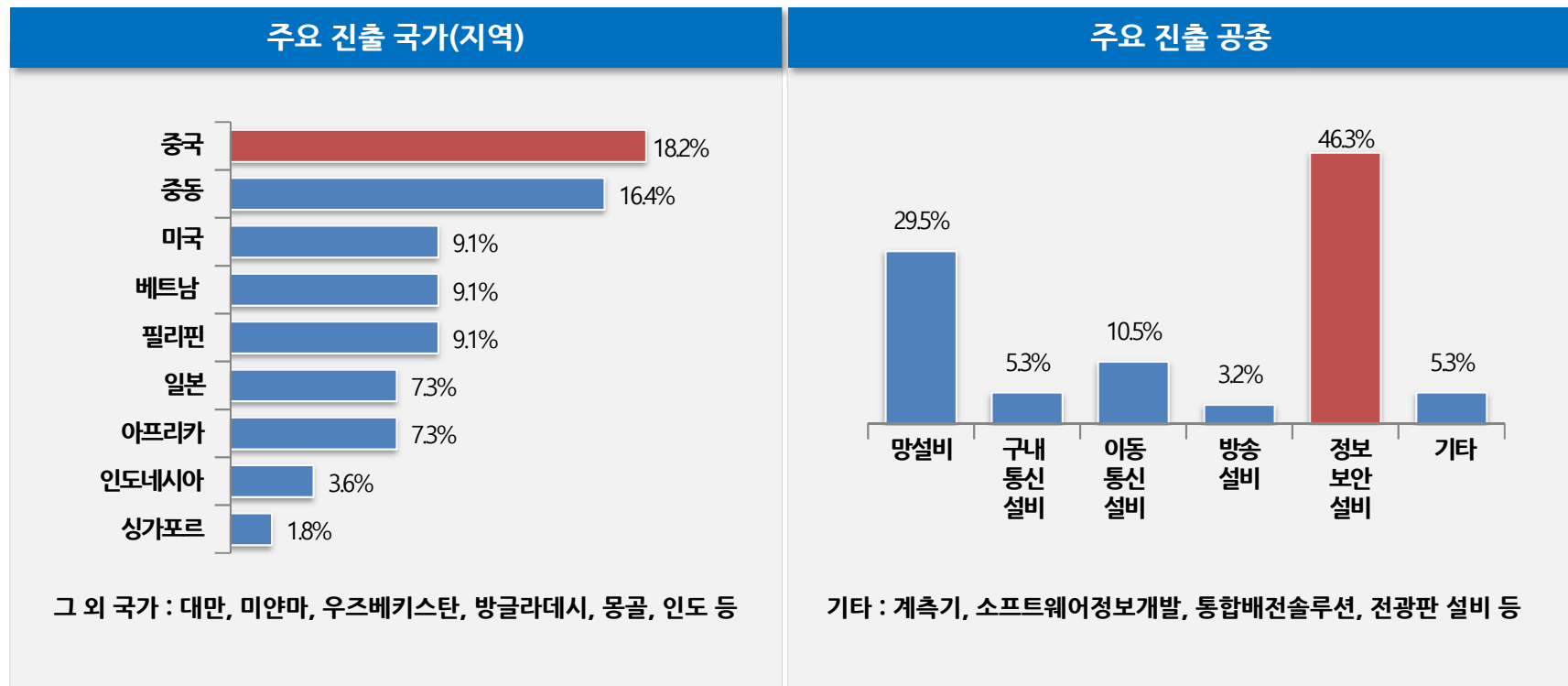
- 2020년 해외 수주 실적을 조사한 결과, 실적이 아예 없거나 10억 미만의 소규모인 업체가 상당수였으며, 또한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국내 기업의 하도급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전년도 수주실적은 실적 없음(48.6%), 10억 미만(24.8%) 순으로 나타남
 - 주요 재원유형으로는 민간 발주(40.6%), 해당 국가 발주(31.7%)가 가장 높게 나타남



3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 실태조사 결과(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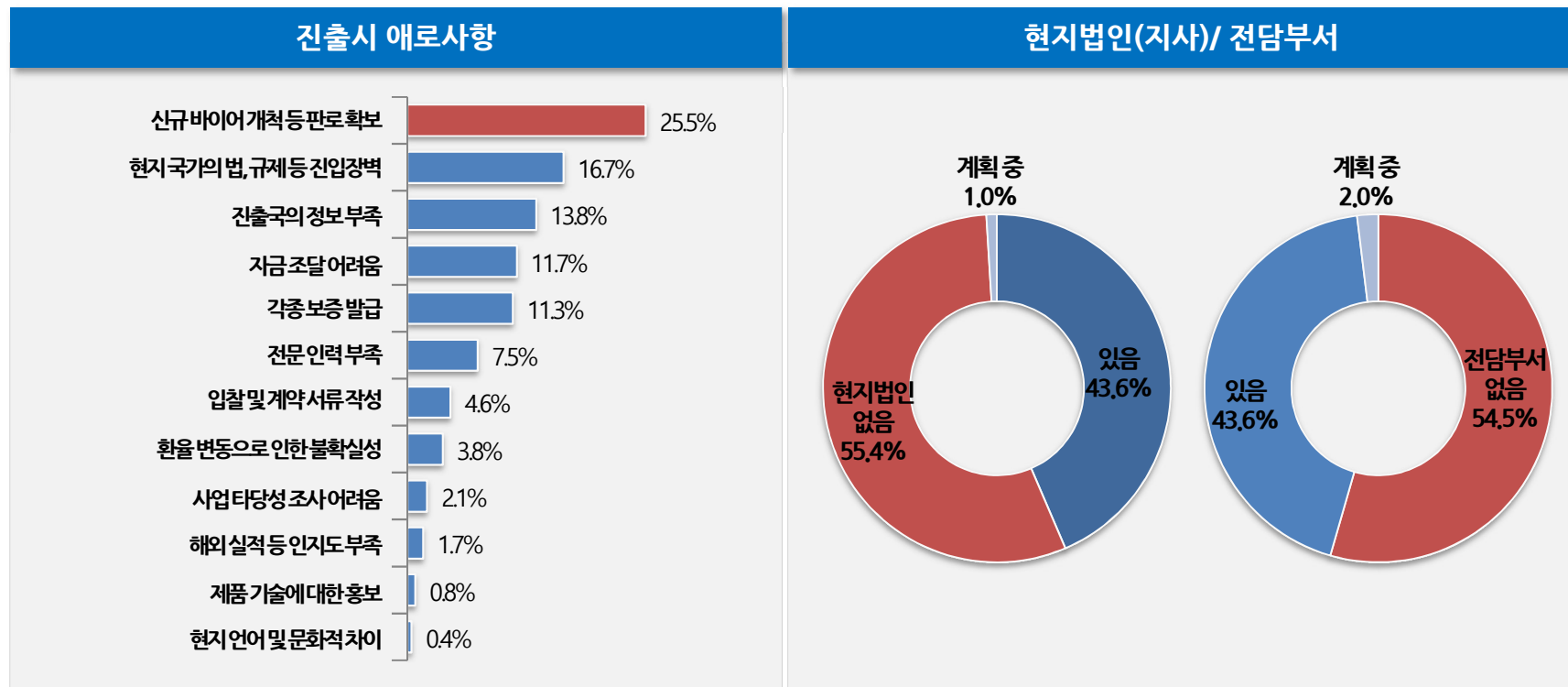
- 주요 해외진출 국가는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이며, 정보제어 및 보안설비를 중심으로 ICT 인프라 설계 및 구축, 컨설팅 등을 실시하고 있음
 - 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중국, 동남아시아 중심)으로의 진출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중동 지역 역시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음
 - 공종별로는 정보보안설비(CCTV, 원격조정 및 자동제어, 정보시스템 관리 등) 및 망설비(WAN, LAN, 광케이블 등) 위주로 진출 비중이 높게 나타남



3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 실태조사 결과(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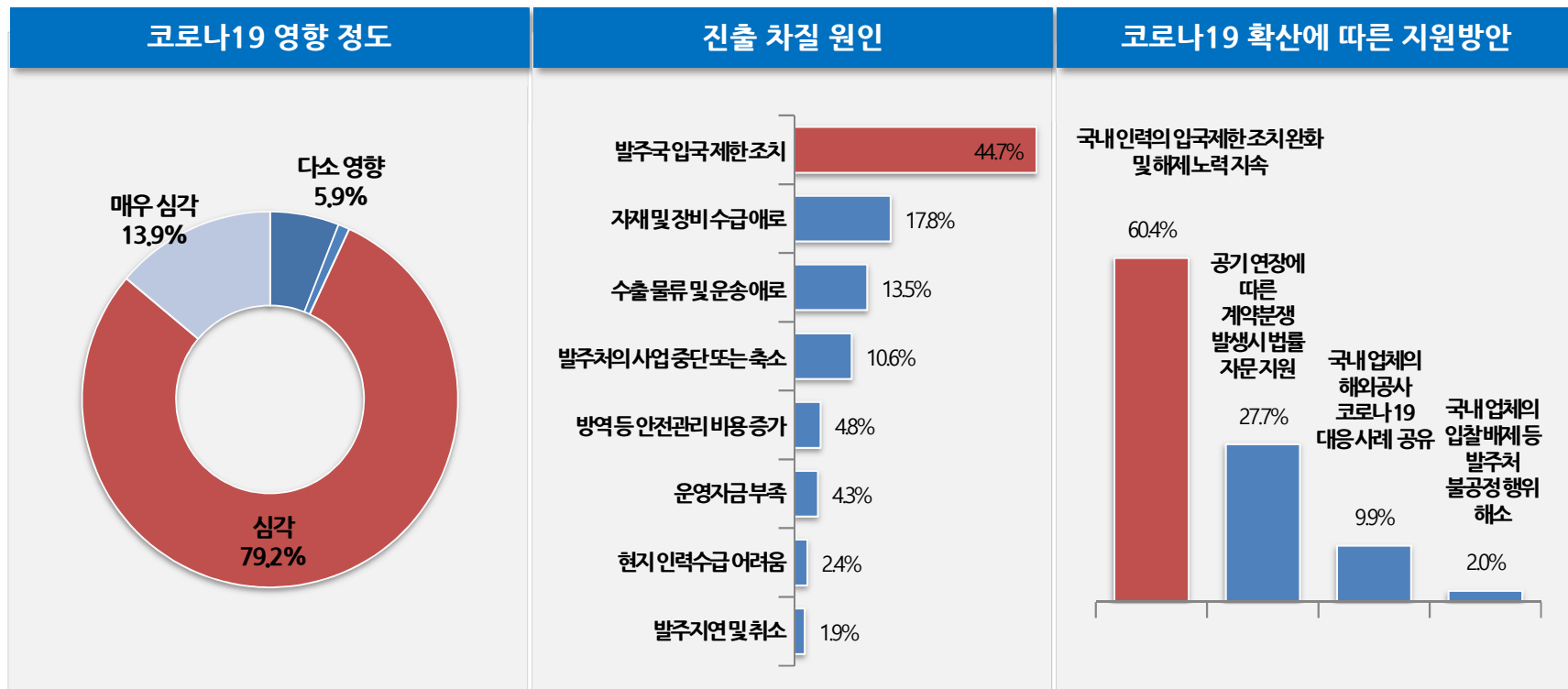
- 현지거점 및 전담부서 없이 국내 타부서에서 해외진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신규 바이어 개척 등 새로운 판로 확보 어려움, 현지 국가의 법 규제 등 진입장벽, 진출국의 정보 부족 등의 애로사항을 겪고 있음
 - 진출시 애로사항으로는 판로 확보(25.5%), 현지 진입장벽(16.7%), 정보부족(13.8%), 자금조달 어려움(11.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현지법인 및 전담부서 없이 해외진출을 진행하고 있는 업체의 비중은 50% 이상으로 나타남



3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 실태조사 결과(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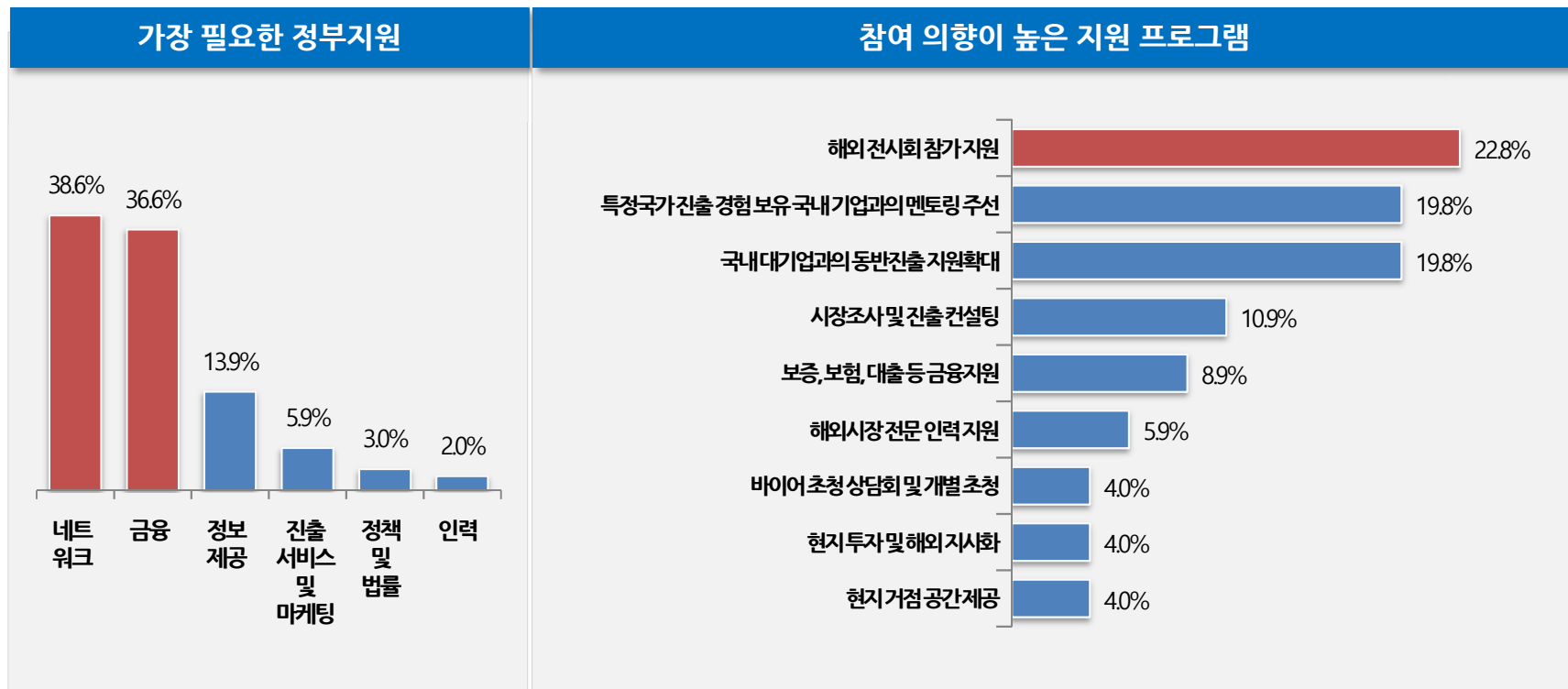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발주국의 입국 제한조치, 장비 수급 및 운송 어려움 등이 지속되어 해외 사업 진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음
 - 코로나 팬데믹이 해외사업 진행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응답(79.2%)이 대부분이었으며, 국내 인력의 발주국 입국 제한 조치 완화(60.4%), 공기 연장에 따른 계약 분쟁 시 법률 자문(27.7%) 등의 지원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음



3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 실태조사 결과(6)

- ▶ 정보통신공사업체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및 금융분야의 정부지원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규 발주처 발굴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 의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정부의 해외진출 프로그램 중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22.8%), 진출 경험이 많은 국내 기업과의 멘토링 주선(19.8%), 국내 대기업과의 동반진출 지원확대(19.8%) 등의 순으로 참여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4

종합 및 시사점(1)

- 포화된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시장 활용을 통한 경영성과 증대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나, 정보통신공사업체의 해외진출은 현지 진출 여건 미흡, 코로나19 상황 지속 등으로 인해 시장 성장과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새로운 수익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해결 방안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필요성 확대

- (인프라 투자 확대) 전 세계적으로 5G 인프라를 중심으로 하는 정보통신 환경 변화와 적극적인 인프라 투자에 따라 연관 산업의 해외시장 활용 기회가 확대될 전망
- (기술경쟁력 활용) 특히 인프라 수요가 높은 아시아 지역 중심의 통신 인프라 구축 경험을 통해 정보통신공사업체의 기술 및 노하우에 대한 사업 수주 기대감 상승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 실태조사 내용 종합

- (진출여건 미흡) 해외진출 수요 기업은 대기업 협력사나 하도급 형태로의 진출로 소규모 공사가 대부분으로 직접적인 진출은 어려운 상황임. 발주처 정보 수집, 바이어 개척, 전문인력 섭외, 컨설팅, 국가별 법제도 활용 가능 여부 등에 대한 판단 등이 자체적인 판단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신규 발주처 확보 어려움으로 인한 네트워크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음
- (해외수주 위축)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입국제한, 현장 공기 지연, 자재수급 애로 등 여러 위험요인으로 인해 수주활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해외수주 실적이 위축되고 있음

4

종합 및 시사점(2)

- 정보통신(인프라) 기반의 글로벌 변화 환경을 적극 활용한 공사업체의 해외진출 활동 및 활용 환경 조성 필요성 증대
 - 적극적인 해외진출 지원 및 활동을 통해 수주 실적 확대 필요

정책적 지원 및 시장 환경 조성 필요

- 정보통신공사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보 수집, 제공
- 다양한 해외진출 정책 활동(설명회, 협의회 등) 전개
- 진출지역 발주처 및 협력업체 네트워크 활용(발주처 초청, 해외 전시회 개최, 멘토링 지원 등) 기회 제공
- 해외진출 지원 기관과의 업무 협조체계 구축
- 타 산업과의 연계 등을 고려한 진출 전략 마련
- 코로나로 인한 피해에 따른 정책 및 법률 자문, 자금 지원 등 지원 범위 확대

정보통신공사업체 자체 역량 강화

- 지속적인 해외진출 관련 투자 및 자체 역량 강화
- 해외진출 활용 인적기반 및 업무체계 구축
- 다양한 채널을 통한 사업 정보 수집, 분석
- 능동적인 지원 환경 활용(시장조사, 컨설팅, 전시회, 공동사업, 초청교육 등 지원제도 활용)